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성인병의 대명사,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당뇨병. 당뇨병과 발기 부전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남성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당뇨병이 유발하는 여러 합병증 가운데 발기 부전은 당뇨병 환자의 35% 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당뇨병은 발기 부전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

발기장애보다 당뇨병 치료가 먼저다

당뇨병에 의한 발기장애는 보통 서서히 발생하고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다. 발기 장애가 오면 흔히 발기 강직도가 감소하고 발기 유지력도 떨어진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기장애가 있더라도 초기에는 성욕이 왕성하나 점차 성기능 장애로 좌절감이 증가하면서 성욕의 감퇴도 함께 발생한다.

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역행성 사정이 되는 것이다.
성관계에 자신감이 없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조루증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기된 음경이 성관계중 조기에 이완되어 버리기 전에 성관계를 무사히 끝내려는 희망사상에서 조루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발기장애 환자들은 우선 당뇨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이 과정에서 발기장애가 호전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발기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발기제가 시판되고 있으며 약물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음경해면체내 주사요법이 있다.
현재 모든 발기장애는 약물복용과 해면체내 주사요법으로 90% 정도는 치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0% 정도의 환자라도 보형물 수술 등을 통해 한번 시술하면 영구적으로 발기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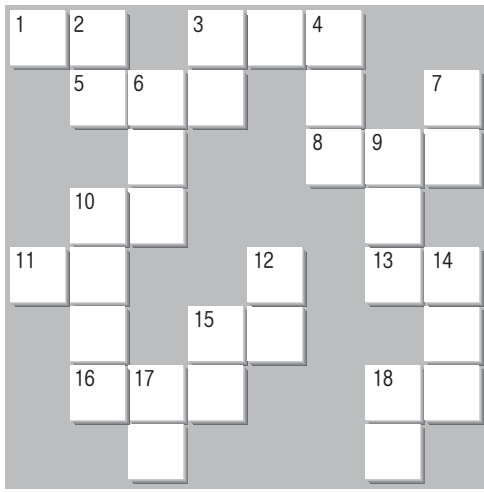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 278 >

가로풀이

1.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문제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3.당구 경기의 한 가지. 흰 공을 큐로 쳐서 번호가 붙은 15개의 공을 당구대에 설치된 6개의 구멍에 넣어 승부를 가림. 5.축구에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자기 팀의 앞 부분에서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통틀어 이르러는 말. ~수비진. 8.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거나 맛있는 먹거리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맡은 사람. 10.실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일. 재고조사를 위한 ~에 나서다. 11.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용의자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경찰이나 검찰의 활동. 13.사람이나 사물

이 어려하다고 가리켜 정환. 15.전화 등이 두 지점 사이에 장애나 장애 없이 바로 통함. 16.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18.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함. 또는 참혹하고 압담함.
2.공사를 완성함. 이 공사는 연말에 ~할 예정이다. →준공. 3.전쟁이나 경기 등을 하기 위해 진을 친. 4.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할 만한 물건이나 일. 6.식을 베푸는 자리에서 용이나 의의의 솜이나 녹 북돋워 주기 위해 하는 말. 7.집이나 날 등이 없는 비어 있는 땅. →빈 땅. 9.물건을 싸거나 꾸리는 데 쓰는 종이. 10.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

세로풀이



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룬 것으로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12.캐틀에서 통과함. 14.눈으로 직접 본 사실에 대한 이야기. 15.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 17.험난한 길. 18.모임이나 회의 등의 자리에 참여함. →참가, 참여.



<함께 풀어봅시다 277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이정희·광주시 북구 윤양동 이순한·광주시 남구 봉선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배재부

뉴스퀴즈

91.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지난 2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27일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 초반 판세 장악을 위한 세움리와 이우선전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1948년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올 대선은 몇 번째 치러지는 것일까요?
①17대 ②27대 ③37대 ④47대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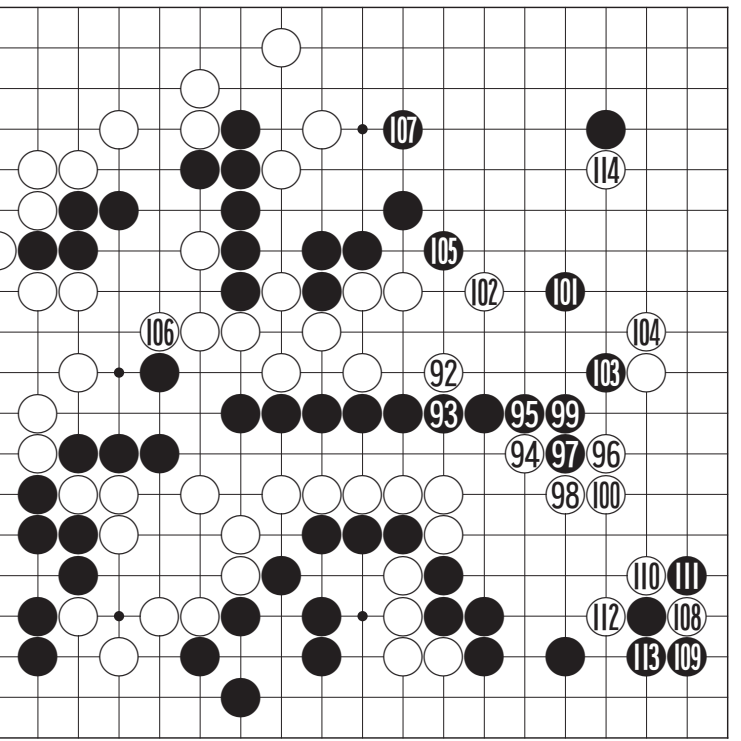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르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배재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11월 26일(음 10월 17일 甲子))

- 36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히나 큰일은 아님. 48년생 외부의 일이家庭까지 騷亂事로 변하니 憂鬱하게 살펴보라. 60년생 처음에는 齟齬스러우나 나중은 便安 72년생 計劃한 모든 일은 이루어짐. 84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成就될 것. 행운의 숫자: 07, 34
37년생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다. 49년생 옛 감정은 털어버리면 새로운 것이 솟아남. 61년생 말다툼이 訟事로 飛火될 수도 있으니 감정을 정리. 73년생 世上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85년생 愛人에게 용기를 북돋우라. 행운의 숫자: 20, 40
38년생 어려움 보여도 쉽게 解決된다. 50년생 手下人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다. 62년생 肝臟과 胃腸의 경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4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仔細하게 檢査해야 하라. 행운의 숫자: 08, 25
39년생 가득 찬 倉庫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1년생 정은 있으나 내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뿐이다. 6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內實 있게 결정된다. 75년생 보기 좋은 때이 먹기도 좋다. 곶감과 속이 꼭 찬 과일이다. 행운의 숫자: 17, 37
40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의 警覺을 갖으라. 52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4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不慣한 사람이 많이 있다. 76년생 가정과 직장사이에서 불평을 만날 기회 발생하니 慎重하라. 행운의 숫자: 09, 26
41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推進해간다. 53년생 積善을 掩藏한 것은 격이니 큰 행이 있을 수다. 65년생 親의의 눈은 쉽게 사라진다. 77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戀人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14, 16
42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分數를 지키라. 54년생 家道安定에 힘을 쓰라. 66년생 防風林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78년생 남을 높이면 自身도 올라간다. 행운의 숫자: 15, 45
43년생 持續的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55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67년생 夫婦사이에서 이해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9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20, 45
44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新事가 발생한다. 56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周圍를 둘러보라. 68년생 子女가 떨어져 살아야 할 境遇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0년생 고개를 넘어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12, 38
45년생 협조자가 있으나 結果는 반반이다. 57년생 旅行으로 信賴를 잃었으니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69년생 過慾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니. 81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準備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03, 29
46년생 精神的 不穩이 발생할 수 있고 不부高麗이 연발할 수 있다. 58년생 모든 일에 불평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枕을 잘라라. 70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82년생 異性보다 親戚을 만나라. 행운의 숫자: 21, 16
47년생 가까운 인사로부터 欺騙을 당하거나 金鎊피해가 있다. 59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운은 없다. 7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選擇을 잘라라. 83년생 개인의 일과는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05, 31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3회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나약한 수 백 102 6보(92~114)

요즘 신예들의 바둑을 보면 유려한 바둑을 지켜 나가는 데는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이가 든 사니어들은 낭만적 인데가 있어서 유·불리를 떠나서 상대의 도발을 참지 못한다거나 기분에 치우친 수를 두는 바람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신예들은 일찍부터 승부에 대한 훈련을 쌓아서 마무리가 거의 완벽하다.
이번에서 큰 손해를 본 박문홍 7단은 마음이 다급하다. 역전이 힘들다는 것을 운몽으로 느끼고 있다. 유일한 희망인 중앙 흑 대마를 위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백 102가 나약한 수로 국후 검토 때 기회를 놓친 수로 지목되었다. 불리한 지극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두고 3으로 불어나가야 했다. 이것이면 '가'가 선수가 '나'에 붙이는 수가 남아 흑이 괴로웠을 것이다. 편하게 흑 107로 지켜서는 흑의 우세가 확고해졌다. 백 114가 최후의 승부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박영훈 삼삼화재배 정매
박영훈 9단이 제12회 삼삼화재배 세계바둑오픈대회 결승에 올라 이세돌 9단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박영훈은 지난 23일 대전 삼삼화재 유상연수원에서 열린 준결승 3경기 최종국에서 중국의 강호 구리 9단에게 325수 만에 흑 1집 반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2승1패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박영훈은 중반까지 백에게 좌변 큰 집을 허용해 비세에 빠졌으나 곧바로 백 진영을 깨뜨리며 반격에 나섰고, 미세한 공방 속에서 결국 '제2의 신산'다운 치밀한 끝내기로 1집 반승을 이끌어냈다.
박 9단은 내년 1월 이세돌과 결승 3번기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41> 오하오우 니혼고 <1041> 니하오 쑹구위 <18> 한자 이야기 <658>

Come on in
뛰어 들어와 봐!
A : The water is fine. come on in.
B : Are you sure? It feels cold.
A : Jump in.
If you get wet all at once you won't feel cold.
B : All right. Here I am.
You are right. It wasn't cold at all.
A : 수은이 닥 적당해. 자, 뛰어 들어와 봐.
B : 정말이야? 차가울 것 같은데.
A : 접프해서 들어와.
일단 온 몸이 흥분 적셔지면 춥지 않아.
B : 좋아. 자, 간다.
자네 말이 맞아. 하나도 차갑지 않는데
\* Are you sure? : 틀림 없어?
\* feel cold : 느낌이 차갑다
\* Here I am. : 나, 지금 가네.
\* not~ at all : 전혀 ~하지 않은
\* You are right : 자네 말이 옳아!

それで先生にちょっと言(い)われたんですよ。
그래서 선생님께 한 말씀 들었어요.
A : 木村さん、浮(う)かない顔(かお)をしてどうしたんですか。
B : ええ、成績表(せいせきひょう)に「F」が三つもあったんですよ。それで先生にちょっと言(い)われたんですよ。
A : そうですか。でも氣(き)を落(お)とさないで、これからもっと頑張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
B : ありがとう。
A : 키무라씨! 우울한 얼굴을 하고, 무슨 일 있습니까?
B : 예. 성적표에 'F'가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한 말씀 들었어요.
A : 그렇습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B : 고마워요.
浮(う)かない顔(かお) : 우울한 얼굴, 심각한 표정
氣(き)を落(お)とさないで : 실망하지 말아요

你忙吗?
바쁘세요?
A: 你忙吗?
Ni máng ma?
니 망 마?
B: 我不忙。
Wǒ bù máng.
워 부 망.
A: 我們一起去看電影吧。
Wǒmen yìqǐ qù kàn diànyǐng ba.
워먼 이즈 쩌 쩌 디안영 바.
B: 好的。
Hǎo de.
호 드.
A: 바쁘세요?
B: 바쁘지 않아요.
A: 우리 같이 영화 보러가요.
B: 좋아요.
忙 [máng] 바쁘다
一起 [yìqǐ] 함께, 같이

多多益善(다다익선)
많을 다, 많을 다, 더할 익, 착할 선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사성어이다.
한(漢)나라 유방(劉邦)은 천하를 통일한 후 일등 공신(功臣)인 한신(韓信)이 반란을 일으킬까 노심초사(勞心焦思) 하였다. 결국 계략을 써서 한신을 회음후(淮陰侯)로 좌천시키고, 끝내 여후(呂)로 하여금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고조는 포로로 잡혀온 한신과 함께 여러 장군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다음처럼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나는 얼마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폐하께서는 10만의 군사를 거느리는데 불과합니다.” “그대는 얼마쯤인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10만의 장군에 불과한 나에게 포로가 되었느냐?” “폐하께서는 장군의 능력은 없지만, 장군을 통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므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史記·淮陰侯傳)
이렇게 군사의 통솔 능력을 말하면서 만들어진 '다다익선'이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상황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